

영암 월출산 '명사탐방로' 개설 총력

용암사지 등 3개소 구간 입지적정성 평가 '적합'
2021년 완공 목표...관광브랜드 육성 기여 기대

영암군이 월출산 명사탐방로의 개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월출산 국립공원 명사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에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환경분야 민간위원 등 7명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 당시 전동평 군수가 참석해 대동제 탐방로와 용암사지 탐방로, 수리재골 탐방로 등 3개소 8.0km 구간에 대해

직접 현장 설명을 펼쳐, 현장평가단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영암군은 앞으로 용암사지 탐방로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탐방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대동제·수리재골 탐방로도 지역협의체 회의와 주민 공청회에 이어 8월중 타당성조사 총괄협의체 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및 고시하게 된다. 월출산 명사탐방로는 군 시행구간인

기찬랜드-대동제까지 2.4km에 5억원,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시행구간인대동제-큰골-용암사지에 이르는 2.6km에 8억원 등 총 5km에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군 시행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탐방로를 개설한다. 국립공원 시행구간도 탐방로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되며, 2021년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기찬랜드와 기찬맞길, 대동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테마형 탐방로 개설과 주민 역량사업과 연계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시설확충 등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지 않았던 길,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깨어

난다'는 모티브로 스토리텔링화 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군수는 "올해 문화관광의 핵심 사업은 월출산 명사탐방로 개설이다"며 "고유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찬랜드와 월출산 중심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탐방객을 증가시켜 지역민의 소득창출은 물론 관광브랜드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사탐방로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한차원 높은 관광영양 이미지를 제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청해포구 촬영장 완도 군민 무료 입장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청해포구 촬영장이 완도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5일 청해포구 촬영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의 제약으로 출타가 어려운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완도 군민을 대상으로 청해포구 촬영장 무료입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완도 군민들은 3,000원을 입장료로 지불하고 이용했었다. 앞으로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신분증이나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완도=최규욱 기자



청해포구 촬영장 전경.

완도, 해초쿠키 등 해조류 디저트 개발 팔 걷어

(주)제이브라운과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MOU

완도군이 디저트 명가 (주)제이브라운과 함께 먹거리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과 (주)제이브라운은 해조류를 활용한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개발 상품은 해조류를 이용한 해초마카롱, 해초아이스크림, 해초쿠키 등 디저트 식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완도 해조류를 활용한 관광 상품 공동 개발,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협력, 사업 공동 홍보·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1완도해조류박람회 기간에는 해조류를 이용한 과자 등 디저트 식품 개발, 해조류를 이용한 쿠키 만들기 체험, 디저트 요리 레시피 공유 및 경연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완도군은 (주)제이브라운과 협력해 가고 싶은 섬 생일도 미니 케이크 제작 등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지원을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관광 상품 개발이 중



완도군은 최근 (주)제이브라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하다"며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해 관광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해남군은 최근 가수 홍자를 해남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홍보대사에 가수 홍자 위촉

해남군이 '내일은 미스트롯' 가수 홍자를 해남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홍자는 앞으로 2년간 명예직으로 군정 홍보, 관광자원, 농수산물과 먹거리 등 해남의 매력을 알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자는 어머니의 고향이 해남군 북일면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해남미남 축제에도 초대가수로 해남을 찾아 외가를 소개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이같은 인연이 이어져 북일면향우회 등에서 홍자를 명예대사로 위촉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홍자는 "해남은 저에게도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으로 홍보대사를 맡게돼 큰 영광이다"며 "앞으로 전국에 해남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귀한 재능과 능력으로 해남군 발전을 위해 뜻깊은 활동을 약속한 홍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해남의 숨은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남=박명태 기자



도암지사협은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틀니소독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도암면 행복나무심기 프로젝트 성료

틀니관리 지원 등 5개 사업

강진군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반기 행복나무심기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도암면은 올해 2월부터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모금된 행복천사 기부금 1,000만 원을 모금회로부터 배분받아 독거노인 틀니관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했다. 도암지사협은 지난 상반기 동안 틀니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25명에게 간편한 가정용 틀니소독기를 보급하는 '어른이가

튼튼 어른건강 튼튼 사업'을 비롯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3가구에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천사의 선물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남상 독거노인, 거동불편 청장년 30명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랑담은 반찬통 사업' 및 '긴급지원 사랑의 SOS 사업'을 추진해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3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펼쳤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 독거노인 틀니관리 지원사업과 집수리 사업은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강진 마량면 주민단체참여숲 준공식

강진군은 최근 마량면 원포리 그라운드골프장 일원에 조성한 주민단체참여숲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욱 강진군수, 남윤택 강진군 산림조합장, 박범석 강진군수협조합장을 비롯한 마량면의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성한 주민단체참여숲은 방

치대 있던 옛 폐교 부지에 가시나무 등 30종 3,955주의 수목을 심고 의자와 파고다 등 휴게시설과 지압·황토포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했다. 이승욱 군수는 "일방적·획일적 수목심기에서 벗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대표 숲이 되도록 숲을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 학산면 지사협 정기회의

영암군 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학산면사무소에서 2020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8기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 협의체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2020년 특화사업으로 집수리 사업과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또 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엔 선출된 임운식 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학산면 만들기에 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무안 건설분야 업무연찬회

무안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군민 중심의 건설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0년 건설분야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제건설국 주관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건설분야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추진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굴착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관리계획 ▲설계용역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수용에 의한 토지 취득절차 등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연찬회가 동료직원 간의 소통은 물론 업무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자신감 넘치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박주현 기자